모나리자 웃음 파괴의 반달리즘

(열왕기상 21:1~26)

11.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2.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13.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14.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15.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모나리자의 웃음 파괴의 반달리즘(vandalism)'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모나리자의 웃음 파괴의 반달리즘(vandalism)'

"반달리즘(vandalism)"이란 폴란드 남쪽에 살던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이 민족 이동시에 이베리아 반도로 남하해서 북아프리카에 머물면서 반달 왕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반달족이 455년에 로마를 침공하여 문화적 유산들을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꼭 그렇게 파괴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훼손시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후로부터 반달리즘이라는 말은 문화적으로 귀중한 유산, 그림, 명품들을 훼손하고 약탈하는 행위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 자연을 훼손하거나 공공기관의 벽에 낙서를 하는 행위까지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17세기 스페인에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ázquez)라는 궁정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의 그림 중에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비너스가 등을

보이면서 나체로 누워있는데 앞에 천사날개를 단 아기 큐피드가 들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1914년 3월 10일 이 그림이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었는데, 메리 리처드슨 부인이 갤러리 안으로 몰래 식칼을 가지고와서 화폭 안의 비너스 어깨와 등을 무려 7군데를 찔러 난도질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붙잡히지도 않고 갤러리를 유유히 빠져나와서 영국여성 정치사회 참정권연대를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애멀린 팽크허스트 여성 지도자가 구속될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멀린 팽크허스트는 여성참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였는데 체포되기 바로 전날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반달리즘입니다.
17세기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는 그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이 반달리즘을 자행한 메리 리처드슨에 의하면 자신이 지지하는 애멀린 팽크허스트가 그림 속의 비너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데도 사람들은 그녀를 구속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체에 도취된 그림 속의 비너스를 칼로 찔러서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반달리즘은 많이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도 어떤 사람이 망치로 15차례나 내리쳐서 성모 마리아의 왼팔과 코를 부숴버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반달리즘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멋진 작품인 인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기획하시고 그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 밑그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그 그림대로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나'라는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최선의 모습은 바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려놓으신 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으로 태어날 아기의 모습까지도 그려놓으셨습니다.
이제까지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과 지금 현재 70억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나리자의 미소를 가만히 보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파안대소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웃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배시시한 웃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만족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에 반응하며 울거나 웃지 않습니다. 웃음의 이유가 하늘에 있지만 땅에서 웃고 있기 때문에 박장대소나 파안대소로 나타나지 않고 배시시한 웃음입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미소를 띨 때가 있습니다. 회사 바깥에서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나리자의 미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 전에 태어날 인간을 그리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담도록 그리셨습니다.
만약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원본을 식칼을 들고 찢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치가 떨리고 용납이 안 되는 반달리즘일 것입니다. 메리 리처드슨도 왜 식칼을 들고 가서 거울을 보는 비너스 그림에 난도질을 해서 찢습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이 감상하고 또 감상해도 좋은 그림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지만 땅의 일들을 제쳐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며 미소 짓는 모습보다 더 감명 깊은 작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가정형편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지만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밑그림대로라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머금은 삶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려진 모나리자의 웃음을 담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내 스스로 파괴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반달리즘을 자행하는 동안에 나는 이웃들의 아름다운 모습까지도 파괴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라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모나리자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 아름다운 내 모습을 찾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리신 모나리자의 미소를 머금은 모습대로 내 인생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궁정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값을 치르거나 다른 땅과 교환하여 넘기라고 했지만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거절합니다.
왕으로서 백성에게 이 정도 제안을 했으면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민의 나라입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땅 값이 부족했거나 단순히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아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나봇도 500년 동안 이 땅이 단순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땅은 매매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사정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더라도 산 사람은 50년째에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본래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원 주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봇을 죽임보다도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 선민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 표면위에 그림을 그리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봇의 조상들에게 그림 그리듯 포도원을 주셨고, 아합에게도 오므리 왕조로부터 하나님의 그리신 그림대로 그의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이것을 훼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 표면위에 그려 놓으신 땅 분배라는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반달리즘이 자행된 것입니다.
이 땅 분배의 의미를 더 확대시켜서 생각해봅니다. 내 땅을 내가 받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나 자신의 호불호가 전혀 관여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나의 외모나 부모님, 태어난 국적이나 환경 같은 것들도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제비뽑아 얻은 땅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호불호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나의 생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기준으로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감동을 가질 수 있는 보시기에 좋은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 모습의 그림과 내 이웃의 모습의 그림들이 다빈치의 모나리자 화폭에 칼을 들이대고 찢는 것처럼 찢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비너스의 그림을 칼로 일곱 번 찢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 인생의 화폭의 모습을 뭉개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모습을 내가 찌르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림의 모습도 찢게 되고 관계 안에서 내 자녀들의 인생의 모습도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반달리즘이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일은 없지만 하늘을 통해 모나리자의 미소를 머금고 살게 됩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머금고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직장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자녀의 성적을 야단을 쳐야 할 때라도 묘한 미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벌려서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하는 중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로 불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계획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거절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도 왕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지만, 이세벨이 간교한 꾀를 내어 결국 나봇을 죽입니다. 여기에서 땅을 빼앗는 반달리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팔아버리는 것이 반달리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여호와가 모나리자의 미소를 머금게 하신 내 인생을 내가 찢어버리는 것이고, 그럴 때에 반드시 이웃의 그림도 찢어버리게 됩니다.
25절에서 또 반복하여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았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사람은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져야 만족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마음은 언제나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흡입력으로 빨아들이는 주입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모나리자의 미소가 배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합은 눈에 보이는 나봇의 포도원에 마음의 흡입력의 주입구를 붙였던 것인데 이 상태가 나를 판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파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하는데 근심하고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안 벌려서,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이 흑자운영이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가져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과 똑같은데 나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팔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그림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더 비쌀 내 모습의 원본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팔 때에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안 벌려서 답답해할 때에 반달리즘이 나와서 나를 파괴하고 미소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신 내 모습을 식칼로 다 찢어버리는 것인데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팔려는 순간,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요것만 있으면 기쁘고 요것만 이루어지면 안심하겠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나를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삼겠다는 결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만족하고 기쁘게 해주실 때에, 비록 세상 일이 형통한 것이 없을지라도 모나리자의 미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인생의 그림이 계속해서 진척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원본이 지구 표면이라는 화폭에 그대로 투영되어 그려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본대로 이 땅에서 그려지고 채색이 될 때에 나의 인생의 가장 멋진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나를 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웃으려 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만 웃으려하는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원본대로 그려져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어떤 것에도 팔려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함으로 모나리자의 미소가 항시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원본대로만 내 인생이 그려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